

특별선교주일

세계 평화 주일



예배자료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

예배자료

각 교회는 원하는 주일을 택해 세계평화주일로 지킬 수 있지만, 삼위일체주일인 올해 6월 12일에 특별헌금과 함께 세계평화주일을 지키는 것을 권장합니다. 잠언 8장, 시편 8편, 로마서 5:1-5에 기초한 아래 자료들을 각 교회 상황에 맞게 바꾸어 예배 전반에 활용하세요. 본 자료를 주보나 유인물에 포함하여 교우들이 뜻깊은 세계평화주일을 지키게 하시고, 함께 제공된 설교자료, 헌금 전 이야기, 어린이 자료와 같이 사용하여 예배의 모든 부분이 한 흐름 안에 있게 하세요.

기도

왕이신 하나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곳에 모인 교회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어 주님의 평화를
만드는 자들로 써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평화를 주사 정의를
만드는 이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지혜가 부르며 명철이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하나님의 세상이 혼란
중에 있다.”

다 함께: 하나님, 우리가 치유의 원천이
되게 하소서.

인도자: 지혜가 부르며 명철이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

다 함께: 성령님, 우리가 자양분의 원천이
되게 하소서.

인도자: 지혜가 부르며 명철이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속박되어 있다.”



예배자료

다 함께: 예수님, 우리가 해방의 원천이 되게 하소서.

다 함께: 지혜가 부르며 명철이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우리는 불의한 체계를 깨트리고 창조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드러내는 평화를 구축함으로써 세계평화주일의 부르심에 동참하기로 결단합니다. 아멘.

헌금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역할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의가 없이는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물질을 전체 연합감리교회가 함께 드리는 예물에 더하시어 정의가 깃든 평화를 건설하는 사역의 밑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피조 세계의 온전함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호하는 일에서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

지혜가 부르며 명철이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세상으로 나아가 평화와 정의의 부름과 외침에 동참하십시오. 특별선교주일로 지키는 오늘과 매일 매일, 불의한 체계를 깨트리고 창조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드러내는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애쓰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평화와 정의를 위해 일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사회신경과 동반 기도문

연합감리교회 교리와 장정-2016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며, 창조하신 것을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



예배자료



을 받았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욕심을 채우려고 이 선물을 그릇되게 쓴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는 자연의 세계가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으신 세계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인류가 이 세계를 보존하고 더 낮게 가꾸어서 성실하게 써야 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바칩니다.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내려 주신 공동체와 성(性)과 결혼과 가정의 복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남성, 여성, 어린이, 청년, 장년, 노년 및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며, 우리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며, 모든 사람의 권리와 존엄을 지키는 데에 우리 자신을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의롭게 하여 주기 위하여 힘쓰는 사람들의 권리와 의무를 믿으며, 그런 가운데 자기들의 안녕을 지킬 권리가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재산 소유의 권리가 있음과 단체의 교섭권을 가짐과 소비를 책임 있게 하여야 함을 믿으며, 경제와 사회의 곤궁을 제거하여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는 온 세계가 평화를 누리며, 모든 인류가 자유를 향유하며, 모든 나라가 정의와 법으로 다스림을 받게 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바칩니다.

우리는 인간 만사에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와 최후의 승리를 거둘 것을 믿으며, 이 세상에서 복음의 삶을 드러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멘.

(이 '사회생활 원칙'을 연합감리교인들이 언제나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이를 교회에서 강조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사회 신조'를 주일예배 때에 자주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예배자료

사회신경 동반 기도문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어, 세상을 향하신 그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우리 창조주의 형상으로 다시 새로워지기를 바라십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창조물이 제 모습을 원상태로 유지하기를 바라시며, 모든 생명체들이 강건하여지기를 또한 바라시며, 귀중한 지구가 파괴되어 감을 보시고 슬피 울고 계십니다.
우리도 또한 그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인간의 모든 색깔을 용납하고 계시며, 사람들의 다양성과 차이점을 기뻐하시며, 낯선 사람들을 친구로 만들어 같이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우리도 또한 그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굶주리고 있는 많은 무리들과 함께 울고 계시며,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을 개탄하시며, 노동 시장에서 정의가 실현되

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도 또한 그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들의 가정과 거리에서의 폭력을 개탄하시며, 세계가 전쟁에 미쳐 있는 것을 꾸짖으시며, 힘센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일으키십니다.
우리도 또한 그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온 나라와 그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기를 요구하시며, 공의와 자비가 모두 이루어질 때 이를 경하하시며,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풀을 먹을 때 크게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또한 그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시며, 갇힌 사람들에게 석방되었음을 선포하시며, 눈먼 사람들을 보게 하시며, 억눌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도 또한 그리해야 되겠습니다.

출처: 2016 연합감리교회 장정. 저작권은 연합감리교회 출판부에 있습니다.

